

사 설

BBS사태 왜 못 푸나

불교방송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심하게 표현해서 불교방송은 무주공산인가. 횡령된 회사 자금이 차질정도로 뒤흔다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최고경영책임자의 결재를 거친후 발생했다해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최근 2개월여를 넘기고 있는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을 지켜보면서 노출된 경영관리공백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려를 낳고있다. 수습방안은 커녕 사건의 진상규명조차 되지않고 나날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은 폭로됐던 초동조사에서 이미 더욱 수습이 어려운 국면으로 내달렸다. 현재 피의자만 지목되고 있는 김선도씨를 차치하고라도, 경영진은 명확한 사건규명보다는 오히려 은폐와 축소에 더 급급했던 인상이 짙다. 게다가 공금횡령을 수사한 검찰도 한류 거들고 있다. 손놓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정도로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은 사태를 더욱 안개속으로 끌어들였다. 이미 조사시기를 놓친 공금횡령 사건은 현재 수습의 실마리를 찾아주지 못한 채 해결이 내시려진 입장만 무성하다. 방송국 자체내만 해도 각 주체마다 수습위가 잇달아 결성되더니 조계종 총무원과 종회도 나서고 있다. 불교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불교방송사태의 수습을 미룰 수 없다. 수습의 절차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상을 규명하면 자연히 해결의 방안이 나오게 된다. 이미 공금횡령으로 드러난 형사사건이니만큼 규명된 진실에 의거해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상식적인 이 절차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길 바라며 지켜보던 불자들이 이제는 세상일과 같이 법대로 해야한다고 보고있다. 그것은 그동안 범죄가 가능토록 방관하고 방치했던 무책임한

경영진과 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사회가 수습에 나선 것이 결국 한계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최고경영진부터 전직 경영책임자까지라도 나서서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어떤 사안은 드러내고 어떤 사안은 덮는다면 그동안의 파행경영과 다를 바가 없다.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 발생과 수습의 과정에서 우려할 몇가지 사안들이 드러났다. 우선 불교방송이 방송으로서 공정성이 있지만, 설립 자체가 불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불자들의 방송이라는 점을 임직원들과 재단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는 재단법인이나 방송국과는 설립추진부터 다른 불교방송이 파행과 혼란으로 이어져 간다면 대 사회적 불교계의 위상 실추는 물론 불자들이부터도 외면당한다. 이것은 향후 불교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방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환하다.

다음은 불교방송 내부적으로 전체 임직원들 간의 불신과 자조 및 사기저하 분위기 개편에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1일 개국7주년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사정공식 고소 고발사건 등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성된 위중한 정서다. 결코 길어져서도 안되며, 공금횡령사건의 수습과 동시에 임직원 스스로가 극복해내야 할 절실한 과제다.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은 정확한 진상규명만이 해결의 열쇠이다. 사건과 관련된 도의적 실무적 책임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공명하고 신속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佛法을 널리 퍼 사비에 연꽃을 피우려는 불교방송에서 항기롭지 못한 소식이라니 불자들의 실망이 크다. 죄는 참회하면 가벼워지고 덮으면 무거워진다. 늦었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송다운 해법을 속히 찾길 바란다.

열린마당

조계종 승려 기본교육

“규제안 4월중 마련...법령개정 추진”

향적 (조계종 교육부장)

교육은 백년대계다. 전체 승려의 보편적 수준이 유지되어야만 불교가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제도화된 체계적 교육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부처님 제자리던 기본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스님들을 기본교육기관에 흡수할 수 있는 보완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교육원은 현재 실무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중 현재 행자교육만 마쳐도 예비승려증(사미증)을 발급하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기본교육을 마쳐야만 승려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또 사승(師傅)도 도제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규제안도 마련중에 있다. 1년에 두 번 설하는 행자교육도 한 번으로 줄여 비구계 수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같은 대책안을 마련, 법령개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현행 '선(先)득도 후(後)교육' 체계 자체를 '선교육 후득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뿐더러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승려예비후보생을 선발, 승가대 졸업과 동시에 사미계를 부여하고 2년제 학원 졸업후 비구계를 수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직하다.

“종단 미래결린 문제...단호조치 절실”

명성 (운문사 승가대학 강주)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마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 귀의한 초발심마저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스님들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선배들과 중국 선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만해도 불교사상의 일반적 인식만 철저하면 다른 교육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와 스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외에도 사회변화를 뒤따르는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

선(禪)수행은 불교에 입문한 승려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학공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필수적 요소다. 기본교육은 올바른 승려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선민을 고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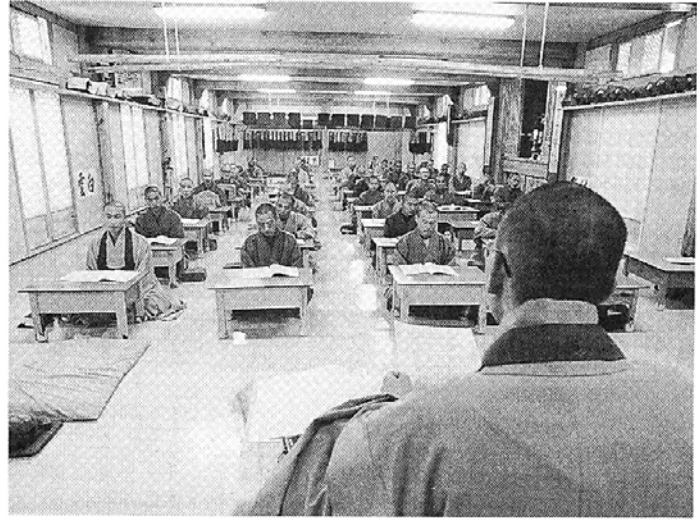
교를 소홀히 한다면 승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승가도 이 사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다.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체계적 교육은 당연하다 하겠다. 기본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등을 이유로 입교를 기피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초발심의 열정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님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 비구계를 수지하지 않은 예비승려를 승려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계종의 내일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교육 현황과 대책

조계종 교육원은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예비승려들이 종단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책마련에 앞서 최근 교육원이 제시한 통계자료. 지난 95, 96년 2년간 사미(니)계 수지자는 모두 914명이며, 이중 기본교육기관(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기초선원 등)에 입교할 수는 2백60여명에 지나지 않아 기본교육 미이수자가 72%에 달한다는 것이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물론 이 통계자료는 추정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상당수의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차제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일반적 중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교육원은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교육 이수 후 승려증 발급, 도제양성과 관련해 사승들의 인사고과 반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교육 왜 안받나

“비구계첩 없어도...”
“은사 시봉하느라”
“불교공부하고 왔는데...”

부산 4사찰의 한 스님은 행자교육을 받던 2년이 지났지만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늦은 나이에 출가했고, 불교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는데 또다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 강원에 있는 스님은 “주위에서 은사스님의 시봉을 드느라 공부를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또 “1~2년 정도 은사스님 시봉을 든 후엔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경기 4사찰의 스님은 “선(禪)에 매력을 느껴 출가한만큼 교(敎)를 따로 공부할 생각은 없다”는 단호한 주장을 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의 지명조차도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한 스님은 “솔직히 말해 비구계를 안받아도 스님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며 “승려생활 본분에 충실하면 그만이지 굳이 4년짜리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천안 4사찰의 한 스님은 “심지어는 출가를 생활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스님도 간혹 있다”며 “이런 스님들을 기본교육기관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중양승가대·강원 등 4년과정 수료해야 예비승려·은사 교육 중요성 인식 필요

한 것은 행자교육까지 마친 예비승려들이 기본교육을 회피하는 근원적 이유로 꼽히는 것이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은사스님 및 예비승려들의 기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행자교육을 마친 후 바로 본·말사 사찰, 포교당의 소임을 맡거나 은사스님이 필요에 의해 데리고 있려 하는 경향이 높다. 또 스스로가 기본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도 있다. 출가 동기가 다양한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경향에 제도적 허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계종은 기본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비구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또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96년 7월 제정·공포된 새 승가대행령은 종단의 인가를 받은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려생활을 하는데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승적상 예비승림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찰에서는 신도들로부터 똑같이 스님대접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비구계를 1년에 한 번 설하는 반면, 사미계의 경우 1년에 두 번 설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6개월 먼저 사미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구계를 똑같이 받게 됨으로써 위계질서 문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이를 탈기위 하지 않는 스님들이 기본교육기관 입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승려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승려의 자질문제에 앞서 조계종의 기강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승려가 어찌 승려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조계종이 귀담아 들어야 할 여론이다.

현명우 기자

현대만평

머리만 깎으면 스님인가?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정축년(丁丑年)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 대도량에서는 예년과 같이 보조국사 종재일을 맞아 3일간의 대법회를 갖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국사의 입적 당일인 5월3일(음, 3월27일) 종재를 봉행하고 인천의 무주 복전인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함께 봉행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인연 있는 불자님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수회 동참하시어 수승한 법연을 맺고 지혜를 얻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법회안내

- 일시 : 불기2541(1997)년 5월1일(음, 3월25일)~5월3일(음, 3월27일)3일간
 - 음, 3월25일(5월1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제
오후 8시 보살계 심지법문
 - 음, 3월26일(5월2일) 오전 7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전 10시 2차 가사불사 회향
오후 2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후 7시 전국불일회 정기총회
 - 음, 3월27일(5월3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의식
오전 9시 법성도 요잡의식
오전10시 787회 보조국사 종재봉행
오전12시 정축년 3월불사 회향
- 계사(三師) : 전계아사리 - 梵日菩提
교수아사리 - 果山慧元
갈마아사리 - 度然法典
- 동참방법 :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이나 삼월불사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송광사 중무소와 명기된 연락처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본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중무소/전화(0661)755-0107, 0108, 0109
- 지역 : 서울본원 법련사/02)733-5322
광주본원 원각사/062)223-3168
대구본원 관음사/053)423-4413
순천본원 대승사/0661)744-4902
부산본원 관음사/051)205-0069
보덕사/051)518-7790
여수본원 보현사/0662)62-5145
송광사 각말사암
각지역 불일회

5. 동참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 동참금 30,000원
- 영가천도 동참금 10,000원
- 가사불사 : 한가족 한벌동참금 300,000원

☐ 온라인번호 ①농협 615-51-008814(예금주 송광사)
②우체국 501676-0014699(예금주 송광사)
③국민은행 551-01-0470-485(예금주 송광사)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중무소/0661)755-0107~9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현고 합장